

민 정 실	음 진 천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사찰예절
 넷째주 일요일 11시 자비수참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범구경: -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녀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네.

Do not want is evil. Do what is good. Keep your mind pure. This is the teaching of Buddh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복원의 타당성.방식.비용 등 논란

2001년 3월 1일, 세계 최대의 바미안 석불(石佛)이 파괴됐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 군사정부는 다이내마이트로 불상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당시 외신은 불상의 잔해조차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석불이 폐불(廢佛)된 지 4년여 만에 복원을 둘러싸고 세계의 문화유산계가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2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첫 여성 주지사 하비바 사라비(48)가 “바미안 대불을 꼭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복원에 대한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바미안 석불은 유네스코에 의해, 파괴된 지 9개월만인 지난 2001년 12월 이미 복원조사에 착수됐다. 복원계획은 스위스 공업도시 바젤 인근의 부벤도르프 소재 아프가니스탄박물관의 설립자인 폴 부헤러와 영화제작업자로 인터넷회사를 경영하는 베른하르트 베버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1500년 전에 바미안 암벽에 새겨졌던 석불의 복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약 200만 스위스 프랑(125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현장조사에서, 파괴된 높이 55m와 38m의 석불 2개에 대한 측량작업이 실시됐고 풍화방지를 위해 파괴부분에 특수 커버도 씌울 계획으로 추진됐다. 2002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정부와 유네스코 공동주최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불 재건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대불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작업은 취리히공대의 아르민 그뤼엔 교수팀이 맡았다. 이들 연구팀의 작업방식은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1970년에 사진계측방법에 의해 촬영된 사진과 그 밖의 여러 사진을 토대로 컴퓨터로 3-D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다음 이 이미지로 10분의 1 크기의 모형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참조하여 원래 크기의 상을 감안에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최소 10년의 기간과 3000만~5000만 달러의 복원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같은 복원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타당성이나 필요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이벤트성으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500년 전 세워졌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인가, 탈레반이 파괴하기 직전으로 복원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많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복원에서도 폐기된 방법 중 하나인 콘크리트 이용방법이 타당한가, 막대한 복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불 복원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파괴된 대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다. 텅빈 감(龕)이 그 상황에 이르게 된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문명사적 의미를 강력한 상징으로 함축하는 것”이라며 대불 복원 움직임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담당자인 크리스천 맨하트 역시 “스위스가 아프가니스탄박물관을 위해 가상 이미지를 만들든, 실제 모형을 만들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도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겠다”고 했다. 대불의 복원보다 아프가니스탄의 총체적 재건과 문화유산의 보존방안 수립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990년대 초 내전 중 약탈당한 사적의 반환을 지난해 11월 영국도서관에 요청한 것이나, 사라비 새 주지사가 역사유적 복원을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 ‘새로운 아프간 시대’가 어떻게 형성될지 전세계인은 주목하고 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교리 탐구: 주제별로 정리한 경전 구절-선(禪)

선은 감로의 법...모든 악 없애

- 올바르게 선 수행하려면 신심.분심.의심 가져야 -

출재가를 막론하고 선(禪) 수행에 대한 열기가 높다. 지난 2일 한국에서는 출가 수행자를 위한 선화자법회가 20년 만에 복원된데 이어, 범어사 설선대법회, 조계사 기획법회 등 ‘선’을 주제로 한 법회도 이어지고 있다. 선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은 감로의 법이며 정심(定心)으로써 모든 악을 없앤다. 지혜는 모든 어리석음을 없애고 영원히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선비요법경> 중권

-좌선이란 지극한 선에 도달하는 것이어서 스스로 성성(惺惺)하며 생각을 끊는 것이다.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좌(坐)라고 하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살면서도 티끌을 여윈 것을 선(禪)이라 한다.

〈선문촬요〉 휴휴암주좌선문

-우바이 비사카가 법락 비구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정(定)이고 어떤 것이 선정의 모양이며 어떤 것이 선정의 힘이며 어떤 것이 선정의 공덕이며 어떻게 선정을 닦습니까?” 그러자 법락 비구니가 답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선정이고 사념처가 선정의 모양이고 사정단이 선정의 힘이고 사여의족이 선정의 공덕이다. 만일 이러한 모든 착한 법을 익혀 꾸준히 힘쓰고 정성스레 닦으면 선정을 닦는다고 말할 수 있다.” 〈중아함 법락비구니경〉 대정 1-788 하

-참선을 하려면 먼저 세 가지 정신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수미산과 같은 굳은 신심, 둘째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과 같은 분심, 셋째는 미지의 중요한 사건의 정체가 드러날 듯 말 듯한 큰 의심이다.

〈고봉화상선요〉

-마땅히 힘써 선사(禪思)하고 바른 방편을 일으켜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라. 선사하여 안으로 그 마음의 고요함을 성취한 뒤에는 참다움이 밝게 나타나느니라. 어떤 것이 밝게 나타나는가. 이른바 이 괴로움의 진리가 밝게 나타나고, 괴로움이 모이는 진리, 괴로움이 멀하는 진리, 괴로움을 멀하는 길의 진리가 밝게 나타나느니라. 〈잡아함경〉 제 16 권

-일심으로 정진하라. 이 일을 설하려니 의심도 품지 말라.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묘법연화경〉 제 5 권

-진실은 문자를 여윈 것이다. 대혜(大慧)여,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물건(진실)을 가리킬 때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을 쳐다볼 뿐, 달은 쳐다보지 않는다. 이처럼 명자(名字)에 집착하는 자는 자기의 진실을 볼 수 없다.

〈능가경〉 제 4 권

-항상 앉아있는 것에는 열 가지 이익이 있다. 첫 번째는 몸의 즐거움을 탐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수면의 즐거움을 탐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침구의 즐거움을 탐내지 않는다. 네 번째는 누울 때 겨드랑이를 자리에 대는 고통이 없다. 다섯 번째는 몸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좌선을 얻기 쉽다. 일곱 번째는 경전을 독송하기 쉽다. 여덟 번째는 잠이 적어진다. 아홉 번째는 몸이 가벼워서 일어나기 쉽다. 열 번째는 방석과 침구와 의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얹아진다. 〈법원주립〉 제 84 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번뇌 소멸된 열반의 경지로 중생 이끌어

‘제행무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청중 근기 따라 대기설법

불교의 ‘세 가지 보배’(三寶) 중 하나인 법보(法寶)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한다. 가르침을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교의 독특한 것으로 ‘법’은 인도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졌다. 법칙.규범.진리.실재.경험 등 여러 뜻을 갖는 ‘법’이지만 불교에 들어와 부처님 가르침.교설.교리 등의 의미로 사용됐다. 초전법륜(初轉法輪)을 통해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했던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법이며,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런 다양한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제법’(諸法)으로 부른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법은 깨달음의 종교적 체험이 구체적 언설(言說)로 표현된 것이다. 연기(緣起)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외부의 타인에게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터득케 한 언설이 법인 것이다. 물론 언설은 대하는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됐다. 이것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한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법했기 때문이다. 초전법륜 이후 열반에 들 때까지 부처님은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했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연기의 진리를 바탕으로 표현된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법인’(法印)으로 표현되는 데, 법인이란 ‘법의 표시’라는 의미로 법의 특징을 가리킨다. 곧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세 가지란 3 법인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淨)을 말하며, 여기에 일체개고(一切皆苦)를 덧붙여 4 법인이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제행무상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모든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철저한 무상의 자각을 기본 가르침으로 한다. 무상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에는 실체로 영원히 존재하는 아트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제법무아다. 제법무아는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계의 중요한 철학적인 논점으로, 아트만과 자아(自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부처님은 실체적인 아트만을 부정하고 연기적인 원리에 입각해 진리를 말했다.

인간에게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심신(心身)의 절대적인 평안의 경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열반적정의 법인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열반의 평안한 경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체개고의 법인은 우리의 삶이 번뇌와 고통의 삶이라는 부처님의 현실 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인간의 고뇌.번뇌를 없애는 것에 주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번뇌를 자각하고, 삶을 올바르게 통찰해 보아,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경지로 중생들을 이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부처님 가르침은 초전법륜 이래 다양하게 펼쳐졌다. 대기설법으로 적시적지(適時適地)에 설해져, 수많은 제자가 생겨났다. 따라서 부처님 법은 타인과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엮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법이라는 고리를 통해 진리의 세계에 눈뜬 자들이 바로 불교도(佛敎徒)이며, 부처님 삶을 모범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의 집단이 승가(僧家)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시 사회규범에 따라 부처님 같은 출가자로 불교에 들어오거나, 재가자로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번뇌 없는 삶을 살아가자 마음먹었다. 불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인 법이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고, 중생들을 평안의 열반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신문-

법회소식 NEWS

- 그동안 많은 신도님들의 연등 제작 동참으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 불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작된 연등은 7일 기도후에 일년간 법당에 모십니다.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2549년째 맞이하는 연등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십시오. 본인도 불사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동참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전에 무량한 복을 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관동 모연문”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5만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영가 일년 연등도 동일하게 50불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데로 1인 1등을 하실 것인지 가족등으로 한 등을 켜실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 4월 3째주 일요일은 전법기도 기간으로서 다시한번 사찰예절 및 습의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대로 한다면 4월달 4째주 법회는 독경기도를 할 차례이긴 하나 5월에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인 부처님 오신날이 있으므로 자비수참 (108대참회 기도)이 있겠습니다. 법회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 간편한 복장으로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 3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7번 무신생 박수민, 18번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141번 병신생 윤갑길, 142번 기사생 윤정원, 191번 정묘생 박일섭, 192번 신미생 박여름, 210번 순흥후인 안병현 영가, 211번 초계유인 최효순 영가, 212번 경자생 오성균, 263번 기사생 김보미, 266번 을해생 이형준, 267번 정축생 이형규, 268번 임오생 이주연.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서는 지봉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